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다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026년 2월 8일 (642호)

2. 아침묵상

디모데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정각에 공개됩니다.

3. 사무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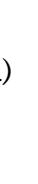
2월 22일(주일) 예배 후에 본당에서 사무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은 꼭 참석해 주십시오. 안건은 2025년도 재정보고와 감사보고입니다.

비교판퍼지 1:6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TOGETHER COMMUNITY CHURCH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지난 주 (2/1) 현금 통계

선교구제 현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현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1570.00

tcc@togetherchus.org

201-580-4123

276 Haworth Ave, Haworth, NJ 07641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기도 Prayer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성경봉독 Scripture Rec

누가복음 22:61-71

교회소식 Announcement

특송 Special Song

말씀선포 Sermon

내가 그다

*찬양 Praise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주일대표기도

2월 15일

2월 22일

김주연

강민선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방학중)

아침목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나를 모른다고 할꺼야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려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기도가 기복적인 기도였다면, 이 순간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기를 기도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는 그에게 믿음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셨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대로 베드로는 자신이 죽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의 부인 예고를 믿지 않으며 자신이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갯세마네 기도 후에 군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에 칼을 뽑아 말고의 귀를 잘라 버립니다. 성경에서 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의를 나타내는 뜻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의로서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의로운 행동인 것처럼 보입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무력하게 끌려 가는 상황에서 칼을 휘둘렀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정의의 칼인것 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칭찬 한 마디는 커녕 오히려 그를 질책 하시면서 그 칼을 도로 꽂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드셨겠습니까? 네 억울하고 분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나약하고 무력해 보였을 것입니다. 오늘도 나약한 메시아, 나약한 기독교를 부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율법주의와 기복주의로 훌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 기독교를 만들어 놓고 그것은 진리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언대로 세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를 쳐다 봤습니다. 그 눈빛은 결코 정죄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은 궁휼의 눈빛이었습니다. 만약 그 눈빛이 정죄의 눈빛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통곡합니다. 닉 올음소리는 무언가를 깨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잠자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닉을음소리가 들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무지함과 무력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바로 거기서 출발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부인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부인할 것인가?의 기로에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져 있기를 소망합니다.